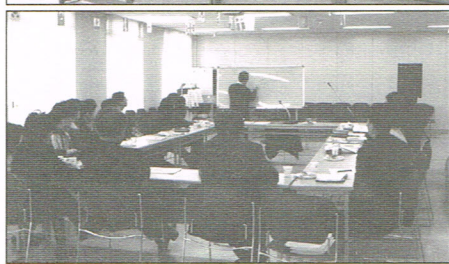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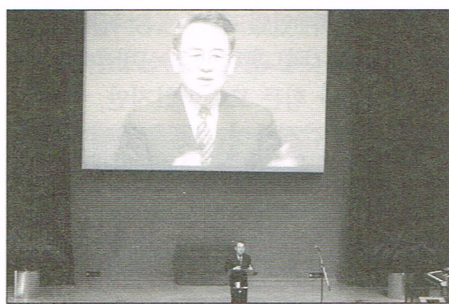


어떻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

3일 동안 800여명의 성도, 전도 부흥회 꾸준히 참여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전도 부흥회가 있었다. 8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채수권 목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관계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간 함께 나눈 전도 부흥회 메시지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날은, 우선 전도(자)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고정관념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모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하사모)으로 바꾸는 전도 과정의 8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전도하고자 하는 자신이 먼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풍성한 은혜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점

은 긴박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의 긴박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전도의 필요성은 항상 뒤로 미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사명감에 사로잡혀야 한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모험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둘째 날은, “다리미와 실크 블라우스”라는 은유로,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자 자신의 기질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그 기질의 강점과 약점을 잘 숙지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도할 것을 당부했다. 채목사는 전도자의 기질로 직선형과 지성형, 간증형과 관계형, 초대형과 봉사형을 제시했다.

이 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기질과 스타일을 점검하고 그 스타일의 강점과 약점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4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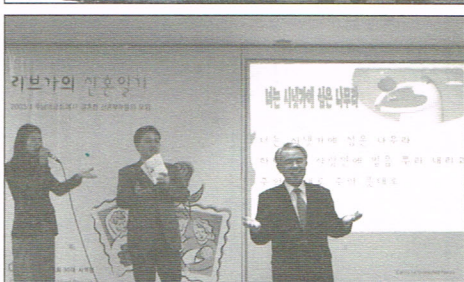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예배

3월 27일 부활주일 또 하나의 예배가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영어 예배(English Service)이다.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제3집회실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이 영어예배를 위해 교육부를 지도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와 영어 예배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나현수 전도사가 3개월에 걸쳐 스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모아 몇 주 전부터 영어 예배를 드려왔다.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영어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 영어 예배를 통해 영어에 익숙한 한국인들과 외국인 그리고 1.5 세대와 같은 이들이 영어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길 바란다. 이 영어예배를 위해 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소 다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 역시 한 형제요, 자매이기에 함께하는 영어예배는 더욱 큰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시대의 부름을 듣고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용납하며 더 큰 신뢰로 그들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 3월 27일 부활주일, 드디어 시작되는 영어예배에 참여하길 원하는 성도나 참여했으면 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성령님의 기쁨부으심이 넘치는 영어예배를 기대한다.

“리브가의 신흠일기를 마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주님의교회에서 결혼한 신흠부부들의 모임인 ‘리브가의 신흠일기’가 3월6일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시간을 가졌다. 예쁘게 꾸며진 실내장식과 깨끗한 현수막, 맛있는 저녁 식사는 스텝들의 섬김을 더욱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게 했다. (4면에서 계속)



架上七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일곱 마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架上七言

올해 고난주간은 3월 21일(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도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특별새벽기도회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 말씀인 가상 칠언(架上七言)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말씀은 문동학 담임 목사가 전하게 된다. 복음서에 기록된 가상칠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복음 23:34).
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3).

셋.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26-27).

넷.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34)

다섯.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28).

여섯. “다 이루었다” (요한 19:30).

일곱.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누가복음 23:46).

특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는 사역팀별로 특송을 담당하게 된다. 월요일에는 시온 찬양대, 화요일에는 정신학원 선교팀, 수요일에는 살롬 찬양대, 목요일에는 앙코르 찬양팀, 금요일에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25일 성금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1부 예배를 돕는 호산나 찬양대가 성금요일 칸타타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진지하게 잘 준비하여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온찬양대

정동수양관에서 강연, 중창 특송, 공동체훈련

산에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던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 (1박 2일간)까지 시온찬양대의 정기 수련회가 남양주 수동에서 열렸다. 포근하고 아담한 느낌의 정동수양관에서 찬양대원과 가족 등 약 80 명이 모여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우동윤목사의 개회예배로 시작한 수련회는 첫날 찬양의 본질에 대한 박치용 집사의 강연과 특송, 공

동체 훈련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치용집사는 강연에서 예배에서 찬양의 역할, 찬양의 본질, 찬양의 전문성과 영성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어진 특송 시간에서는 남성 4부 중창과, 여성 4부 중창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을 맘껏 발휘하였다. 심야까지 이어진 공동체 훈련에서는 빙고, 골든 벨, 웃놀이 등 유익한 게임을 통해서 찬양대원들이 서로 일치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맑은 공기 탓인지, 찬양대원들은 일찍 기상해서 뒷산에 올

라서 함께 찬양으로 아침을 열었다. 아침 식사에 이어진 고려대 구로병원장의 건강의학 시간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음식과 성실한 생활 태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깊은 신앙심이 건강의 지름길임을 들었다. 이어진 성격 유형 파악 프로그램인 에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판단해 보았으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신과 다른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 점심 식사 후 찬양대원이 한 맘이 된 체육행사에서는 탁구, 농구 등의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온찬양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올해 새롭게, 새로운 마



음과 깊은 정성으로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참 봉사자로 헌신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고, 찬양대원간의 조화와 관계 회복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 하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가다듬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군부대 선교

25사단 신병교육대 병사들을 찾아간 기쁜 소리 찬양단



지난주일(3월 6일) 1교구 14구역 이혜성 집사와 3교구 4구역 홍의운 집사가 중심하여 섬기고 있는 기쁜 소리 찬양단이 25사단 신병교육대 500여명의 병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혜성 집사가 단장으로 있는 이 찬양단은 총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찬양장비(1톤 트럭분)를 가지고 군부대에 모여, 군 찬양선교를 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이혜성 집사가 속해있는 1교구 14구역의 구역장(섬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었다. 특히 1교구 14구역은 2005년도 구역목표를 “한 구역 한 사역”이라는 목표로 잡고 기쁜 소리 찬양단의 군선교를 구역 차원에서 조금씩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 찾아간 25사단 신병교육대 교회이름은 “사랑의 교회”였으며, 40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의 교회로, 과거에는 창고로 쓰였던 장소였지만 남서울 교회의 후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와 영상장비를 갖춘 멋진 예배당으로 탈바꿈 되어 있었다. 저녁 7시30분, 400명 정도의 장병들의 참석을 예상했지만, 500명이 훨씬 넘는 장병들이 참석하여 예배당이 차고 넘쳐 통로 바닥에 앉아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아직도 쌀쌀한 날씨라서 그런지 신병들의 기침소리가 많았다. 이 날은 또한 온누리 교회 장애우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아이들이 8년 동안 연습하여 멋진 찬양의 선율을 병사들에게 선사했다. 이후 이어진 이혜성 집사의 인도로 시작된 찬양은 두 대의 신디와 드럼, 기타, 베이스, 섹서폰이 함께 싱어들과 잘 어우러진 힘 있고 훌륭한 하모니를

기미) 임기택 집사는 이 날 군부대교회 사역팀 팀장인 강진식 집사와 함께 군선교 현장에

이루었으며 뜨거움과 위로와 격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졌다. 530여명이 찬양하는 합성은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군에 갓 입대하여 군인의 기본 모습을 갖춘 훈련받은 신병훈련병들의 모습은 피곤하거나 힘든 모습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간 중간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손을 들고 힘차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많은 훈련병들의 모습도 보였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임재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 날의 설교 말씀은 박의일 전도사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순종하면 여리고 성과 같이 아무리 커다란 인생의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승리와 소망의 메시지였다. 이 날의 집회는 하나님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리며 젊은 장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고 이 예배를 통해 지치고 피곤해하는 장병들이 주님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병영생활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하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오늘 기도



우리가
영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따뜻한 봉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는 주일의 커피

주일 1,2,3부 예배 후 또 교회 행사시 제공되는 환상적인 맛의 커피를 만드는 봉사부는 16명 집사들이 봉사하고있다. 무거운 차주전자를 나르고, 컵을 준비해주는 일은 남자집사들이 돕고있다. 겨울철 밖에서 봉사하는 차량부를 위해 찬양대원들과 다른 부서 봉사부원들을 위해 커피와 동글레치는 고마운 선물이다. 주방부 차담당 부원들은 1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주일 봉사를 위해 일찍 교회에 나온 성도를 위해 새벽 6시부터 주방에서 준비한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커피맛에 반했고, 차를 마시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간혹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묻는 성도들이 있는데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비결은 집사들의 깊은

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커다란 주전자 한통에 약 50잔의 커피가 나오는데 주일 하루동안 약 3000잔의 차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제 맛을 보지않고 커피색만 보고도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1,2,3부 예배까지 모두 마치고 컵을 세척하고 정리한 후 다음 주를 약속하며 헤어지게 된다.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 하는 주님의 교회 커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집사들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 커피만의 유일한 맛이 유지되는 것이다.



여선교회 연합예배

3월 8일 화요일 11시 여선교회 연합 예배가 있었다. 이 날 정영환 목사는 창세기 21장 14-19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네 손으로 붙들라”는 설교를 했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이 말씀을 항상 사자와 이삭의 입장에서만 당연하게 여겨왔었다. 그러나 이 날 설교를 통해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엄청난 환란을 당한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가족부대 속의 물을 의지할 때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눈물로써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어 눈을 밝히사 마르지 않는 샘을 보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참석한 이들은 하갈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하갈과 같이 눈물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자고 고백했다.

설교 이후에는 각 여선교회별로 모임을 가지면서 2005년 한해의 방향과 목표를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계획하고 이후에는 지하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와 나눔을 풍성하게 가졌다.

하프타임, 제2의 꿈의 시작

오늘 오후 1시, 제3집회실에서 첫모임 가져

양육1위원회 소속 하프타임사역팀이 첫모임(총회형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하프타임사역팀은 올해 신설된 제직부서로, 인생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후반기를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운동경기에서 쓰는 하프타임이란 명칭을 부서명으로 정하였다. 하프타임사역은 50대 이상의 모든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주요한 사역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이다.

첫째는 평생교육과정이다.

기존의 노인대학 개념을 업그레이드한 평생교육개발과정을 계

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형식 및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발전시키려 한다.

학기제의 특장을 기획하기에 앞서 홍보성 이벤트로 몇차례의 시범강의를 임원진에서 계획하고, 시범강의 후 설문지를 통해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및 실버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교회에 맞는 실버사역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는 의미있는 사역개발을 통한 봉사활동의 장 마련이다.

교회내 기존사역부서에서 흡수할 수 없는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영역을 개발하고 연령별 특성

에 맞는 교회 내외의 사역개발을 통하여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호스피스와 구제사역이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사역과 구제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독거노인과 요양중 노인 심방, 구제하는 사역, 장례식 지원 및 납골당 등의 장묘문화를 선도, 안내하는 사역 등이다.

장례문화에 대한 것은 주님의동산 건립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추후 방향성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프타임 사역팀 첫모임이, 총회형식으로 3월13일(주일) 오후1시 제3집회실에서 열린다.

교회학교 수련회

‘그리스도안에서 특별한 우리’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 가져

지난 2월 25, 26일 소년부(5-6학년)는 ‘그리스도안에서 특별한 우리’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가졌다. 98명의 소년부 친구들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의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성 확립’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했다. 개인이 즐기는 것을 지양하고 조별로 움직이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리고 뽀빠이 축제 예배에서 드러지는 게임맨과 캐릭터맨을 준비하여 아이들 앞에서 교사들이 망가지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

임과 플스게임, 그리고 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즉,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준비하여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3박 4일하자고 한다. 어떤 아이는 일주일 동안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물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

졌다. 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들이 이제 서로를 알기 때문에 눈치보지 않고 찬양한다. 손을 흔들고 춤추며 찬양한다.

이젠 찬양에 대해 말씀에 대해 반응한다. 흥분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있었다. 그것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헌신된 교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믿음의 사람들이여! 함께 다음세대를 준비하는데 동참하길 호소한다! 지금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꿈꾼다. 우리 소년부를 통해 이시대의 다윗이 나오고 이시대의 바울이 나오길 바란다.



이 사명,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이뤄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길 기도한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롬 12:1) 말씀으로 무장, 각성하는 시간 되어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월 25일에서 27일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 그린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도착한 가평에는 함박눈이 쌓여있어서 설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배정된 숙소로 짐을 풀고 4층에 있는 다락방 예배당에서 모여 윤은성 목사의 개회말씀이 있었다. 둘러앉아 각각 편지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임의로 뽑은 사람이 받는 이가 되어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으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부 이상호전도사가 학교에 대한 비전으로 끓었던 열정을 청년들에게 전해주어 도전하도록 일깨웠다. 수준 높은 성경대회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별로 로마서를 통독했고, 예배소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절을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한 조는 말씀을

완벽하게 맞추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식사 후 이강혁 전도사의 찬양과 말씀 시간을 가졌다. 후발대로 온 많은 청년들로 90여명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둘째 날, 아침 6시 30분 기도묵상 시간을 가지고 오전에 조인수전도사의 특강을 들었다. 점심 후, 뽀빠이 강에서 썰매를 타며 조별로 대항전을 가지고 넓은 들에서 눈싸움을 하며 뛰놀았다. 눈을 뭉치며 웃느라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동헌수 안수집사, 최상인 안수집사와 이희숙 권사의 선택특강시간을 가졌다. 인생의 선택으로서, 신앙의 선택으로서 삶을 사는데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과 진솔한 경험은 세상에서 아직 초보인 청년들에게 많은 귀감을 전해주었다. 마지막 저녁집회시간에는 윤은성 목

사가 말씀을 전했다. 청년들에 막혀있는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회개하고 새롭게 되도록 각성시키는 말씀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윤은성 목사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차례로 기도해주었다. 부장집사들도 함께 기도했고 전도사가 기도를 이끌며 계속 중보하자, 모두가 마음을 쏟는 기도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집회는 밤 12시정도가 되어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수련회 밤을 장식하는 폭죽으로 청년들의 얼굴에는 흥겨움과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27일 주일,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맡은 봉사를 위해 새벽에, 아침 7시에, 9시에 먼저 출발하고 오전 11시 주님의교회 4부예배를 위해 모두 주님의교회로 향했다.

중보 기도 사역, 지난 주일 발대식 이후 기도 요청 밀려와

지난 주일 13부까지 매예배때마다 중보기도 사역팀이 2년간 준비한 중보기도 사역의 발대식을 가졌다. 헌신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출범의 시간을 가졌다. 그 이후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동안 중보기도 요청카드가 수백장 밀려들어왔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보기도사역팀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친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6층에 있는 중보기도사역 전용실에서 매일 6시간 이상 교회와 교인들이 내놓은 중보기도제목을 보고 비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현재는 6명이 한 시간씩 6시간을 기도하고 있지만, 중보 기도 제목 요청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면 현재 하루 6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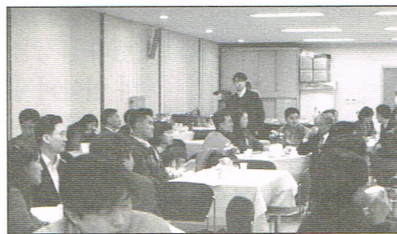
야 할 전망이다. 중보기도 사역팀을 믿고 중보기도 제목을 요청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중보기도 사역팀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고 있다. 이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 사역자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중보기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1.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앞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기도카드를 적으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사역자들이 매일 카드를 확인하여, 6층 기도실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2. 교회 홈페이지(www.pcitv.org)에 있는 중보기도 배너를 클릭하셔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기도제목 중에서 기한이 분명하거나 긴급한 기도는 1달, 일반적인 기도제목은 3달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맡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카드를 작성해주세요.

(1면에 이어서)

“리브가의 신흔일기를 마치고”



14 가정과 스텝들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손을 잡고 기

도하는 시간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문동학 목사의 사랑의 언어에 대한 권면과 장철 집사의 멋진 성악, 장근희 자매의 시원한 찬양 그리고 두 쌍의 신흔부부 에피소드는 모인이들로 즐겁게 만들었다. 끝나고 난 후 모였던 사람들은 30CUP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어 주었다. 30CUP 사역을 통해 30대들이 필수적으로 겪어야하는 혼돈과 불안, 삶의 문제들을 직시하여 믿음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길 기도해 본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어와나

불티 2반 3월 26일 오픈!

3월 첫번째 어와나 클럽 모임의 날, 매월 마지막 주를 쉬는 관제로 단원들과는 2주만의 만남이 되었다. 약 20명의 단원들은 초등학교를 진학해서 학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언제나 즐거운 게임 시간을 통해서 단원들은 협동심을 배우고, 연약한 친구를 위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은 보기도 좋았다.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 목청을 돋우며 응원을 하는 순수한 모습은 아름답게 보였다. 또 반칙에 대해 고백하는 모습과 단호한 판결은 부정직함을 버리는 훈련이 될 수 있었다. 오늘 교제 시간에는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간 단원들을 위해서 느낀 점을 나누었고, 이에 2학년이 된 선배 단원들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초등학교 당시의 어와나 교사들의 애로 사항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단원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 지어졌다. 어와나클럽 불티 2반의 오픈 일정은 3월 26일 오후 5시 30분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2일 토요일 첫번째 클럽 미팅시간을 갖는 것으로 짜여졌다. 불티 2반 클럽 미팅시간은 토요일 오후 4시로 확정하였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불티 1반과 함께 쉬게 된다. 불티 2반 교사들은 이를 위해 한국 어와나 본부에서 주관하는 기본교육을 이미 받았다. 불티 2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신학원 선교 세미나

10일(목) 오전 11시에 정신학원 선교 세미나를 가졌다. 이인호 목사의 설교와 최규명 목사의 정신학원 선교 발자취 회고 시간, 하태원 집사의 정신여고 학생 상담 사례 발표, 김복희 집사의 프로그램 설명 시간과 합심 기도의 시간을 오후 시간까지 가졌다. 현재 정신학원 선교는 정신여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의교회가 8개 학급,

영락교회가 5개 학급, 남포교회가 2개 학급을 섬기고 있다. '기도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신여고 학원선교는 학교의 연중행사와 주요 프로그램에 맞춰 함께 참여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현장에서 나누고 있다. 반별로 들어가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 제목을 받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2학년 에 랑 캠프에 참여하여 함께 사랑을 나

누고, 기말고사 때나 연말에 수능고사를 앞두고 함께 기도해주는 따뜻한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고만 실행되고 있는 이 기도어머니 프로그램이 여중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기도어머니들이 이 학원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현재는 영락교회와 남포교회만 협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1면에 이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셋째 날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교회는 소문난 잔치집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초대교회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교회였으며, 서로의 필요를 깊이 배려하고 살피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였고, 주변의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세상을 향해 두 팔을 활

은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날 책목사는 먼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자할 때 주저함을 지적하면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전환문구들을 서로 연습하고, 복음의 4가지 구성요소인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자기 자신에 대해 핵심

작 벌린 교회가 되었기에 초대교회는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부흥의 놀라운 기적과 많은

적인 요소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다. 이 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의 핵심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연습까지 나누는 귀한 경험을 가졌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막연하고 두려웠던 전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곧 시작될 4부 전도 예배를 위해 전교인들이 관계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통해 미리부터 기도와 함께 준비해야 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으로 일일견학

레인보우는 지난 달 20일, 코엑스 아쿠아리움으로 일일 견학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처음 보는 신기한 바다생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물들이 존재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지난 주일(2.27)에는 교사들의 일일 엠터를 통해서, 교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 통합아동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인보우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게임 시간 뿐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일기를 쓰도록 하고 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구절을 적어 그날의 하루 일기를 쓰도록 하는데, 이것은 절대 숙제의 개념이 아니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더욱 친근히 교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 신체가 건강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레인보우가 되길 기도한다.



나눔의 물품, 특별한 요청 / 복지선교부

매월 셋째 주일은 복지선교부에서 나눔의 물품을 받는 날이다.

현재 시급한 물품이 있다. 금산 공부방 및 마천동 무지개 동산에서 아동복, 동화책, 장난감 등의 필요를 부탁해왔고?여주 희망의 집에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의류 그리고 마천동 소망의 집 등에서도 장애아를 위한 물품을 기다리고 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나눔의 물품은 교회 1층 로비에서 받는다.

PTP 집회 안내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연합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월 19일(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기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주제는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 교육”입니다. 인도는 홍민기 목사가 하며, 대상은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6월말까지 이 기도회는 계속됩니다.